

복구, 골목재생 사업 '김정호 거리' 만든다

광주 복구 출신 '하얀나비' 가수 수창초등학교 돌레에

내달부터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 복구가 주민참여형 골목재생 사업으로 노래 '하얀나비'를 부른 가수 고(故) 김정호(본명 조상호·1952~1985·사진)의 음악적 자산을 활용한 '김정호 거리'를 조성한다.

복구는 "4일 문인 복구청장이 복동 수창초등학교 인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인 '김정호 거리' 조성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사업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4일 밝혔다.

복구의 '김정호 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광주 시 공모에 선정돼 2019년까지 시비 3억 원을 들여 김정호 동산 조성·김정호 스토리길 조성·마을골목길 꾸미기·음악다방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대상지가 복동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김정호 동산 조성 사업만 완료하고 지난해 1월부터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지됐다.

지난 4일 복구와 김정호 거리 조성 사업자인 마을주민협의체, 복동재개발추진위가 사업 대상지를 최대한 보존하기로 협의하고

사업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복구는 6월 중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복구청장은 현장 방문 자리에서 "김정호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공평기와 반상가 등 도심공동화가 심각한 복동이 유동인구가 넘치고 사람냄새 나는 마을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재생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골목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복구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복동 일대에서 하얀나비 김정호 노래부르기 대회, 김정호 추억 나눔장터 등 '김정호 추억의 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가수협회 광주

시지회 주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는 '제5회 김정호 추모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970~80년대를 활동하다 33살에 폐결핵으로 요절해 '비운의 천재가수'로 불리는 김정호는 '하얀나비', '작은새' 등 히트곡 50여편을 발표하며 한시대를 풍미했다. 작고 이듬해인 1986년 한국 가요대상 최초로 송창식, 윤형주, 김현식 등이 참여한 추모앨범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복구가 고향인 김정호는 광주시 복구 복동에 위치한 수창초등학교를 2학년까지 다녔다. 김정호의 외가가 있는 담양군도 2015년 메타세쿼이아 길에 김정호 노래비를 제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동 경고전화 '불법광고 킬러' 떴다

광주시 불법광고 근절 나서 자동 경고 시스템 도입 운영

광주시는 고리대부업·성매매 알선 등 불법 전단·현수막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경고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불법 광고 킬러'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광고 킬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3초~1시간 주기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대포폰 사용이 많은 불법 광고물

전화의 경우 신고부터 사용정지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시에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될 시스템은 광고주 번호에 자동 방식으로 지속적인 경고전화를 걸어 과태료 부과안내·경고 멘트를 들려줄 수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노인복지 연계 업무협약



광주복지재단(신임섭 대표)과 광주테크노파크(김성진 원장)는 4일 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사업과 노인복지와의 연계를 위

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동연구사업의 개발 및 추진

▲기관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교환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글로벌 광주' 교두보 삼는다

이용섭 시장 7개국 대사 면담 주요국과 교류협력 강화 계기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발판 삼아 주요국가 도시와의 교류 협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3일 스웨덴·인도·독일 등 7개국 대사들과 만나 수영대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외국대사들과의 면담에서 국가간 우호협력에 그치지 않고, 개최 도시 광주

와 각국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외국대사들도 이 시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제안했다.

야콥 할그렌 스웨덴 대사는 "한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스웨덴 영화제, 명예영사 대학 특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광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인도 대사도 인도

의 한 도시와 광주가 재매결연을 맺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슈테판 아우어 독일 대사는 "독일과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양국은 물론 광주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과 3일 이틀동안 스웨덴, 독일 등 수영강국 7개국 대사들을 만나 대화참가 요청 서한문을 전달하고, 수영대회 개막식에도 공식 초청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택화재 예방 소화기·경보기 보급 전국 첫 시민설치단

광주소방본부 24명 선정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설치단'을 활용해 소화기·주택화재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방 공무원이 직접 소방차를 타고 다니며 소화기 등을 설치함에 따라 소방시설 보급 한계와 화재출동 등 소방력 공백이 우려됐다.

시민설치단은 채용공고와 서류심사·면접을 거쳐 24명이 최종 선정됐다.

6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 5개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약 1만여 세대를 방문해 소화기 등을 보급한다.

특히 세대당 소화기 1개, 주택화재 경보기 2개를 설치하며 기기 외관·작동상태 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일 시민설치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목적, 설치방법, 주택화재 피해 저감사례와 민원 친절응대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적정 설치 여부 등 활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설치단이 직접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면서 소방공무원이 현장출동과 소방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자율설치 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침체일로' 산수시장을 살리자

동구 7대 상권 특성화 TF팀 상인 35명 등 참석 현장워크숍

광주시 동구 상인, 주민, 공직자들이 산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산수시장은 1974년 개설 이래 지난 2014년 전통시장으로 정식 등록됐으나 대인시장(예술특화시장), 남광주시장(수산물특화시장)에 비해 특성화되지 않아 당초 조직된 상인회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동구는 민선7기 출범이후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7대 상권 특성화 TF팀'을 구성하고, 산수시장을 '먹거리 및 마을장터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TF팀은 5월 한 달 간 시장상인들과 1:1 방문상담을 진행, 상인의식 개혁과 상인회조직 등 상권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장워크숍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70여 개 점포 상인 중 과반에 달하는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동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수시장 활성화 의지 및 비전 제시 ▲부서별 시장활성화 사업 안내 ▲시장전문가 임창욱 호남대 경영학부 교수 특강 등을 진행했다.

동구는 이번 워크숍이 산수시장 활성화와 상인회조직 필요성에 대해 상인들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상인회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날 중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현장워크숍을 시작으로 상인들이 주체가 돼 산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상인회 재정비가 완료되면 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특성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복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만매각.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